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 D-34

“우리도 뛰다”

- 서정치과

“환자의 건강을 지키려면 우리부터 건강해야죠.” 광주시 동구 학동에 위치한 ‘서정치과’ 직원 45명이 오는 3월 1일 열리는 ‘3·1절 전국마라톤대회’에 출사표를 던졌다.

건강한 의료진 ‘활력 가득’ 진료도 봉사도 ‘사랑 가득’

전직원 ‘1인 1종목’ 스포츠 마니아

김재곤 원장(45)은 “지난해 처음으로 직원들과 3·1절 마라톤에 참가했는데 결속력이 높아지고, 병원 분위기도 한층 밝아졌다”며 “앞으로도 3·1절 마라톤 대회만큼은 꼭 참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곤 원장 학창시절 육상 기대주

김 원장은 학창초등학교 6학년 때인 지난 74년 3·1절 전국마라톤대회(당시 광일단축마라톤)에서 3위를 차지했던 육상 기대주였다.

직원들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김 원장의 건강 애찬론 덕분에 직원 모두가 ‘1인 1스포츠’를 즐기는 운동 마니아가 됐다.



광주시 학동에 위치한 서정치과 직원들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3·1절 전국마라톤대회’의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90년 개원 이후 꾸준히 봉사활동

서정치과 직원들의 마라톤 입문은 김 원장의 제안으로 시작했다. 김 원장과 마라톤과의 특별한 인연 때문이다.

이씨는 “3·1절 마라톤에 참가하기 위해 하루 40분씩 출·퇴근을 걸어서 했고, 퇴근 후엔 헬스장에서 근력과 유산소 운동으로 체력을 다져왔다”며 “몸무게를 공개할 순 없지만 다이어트 효과도 특출히 좋았다”고 활짝 웃었다.

이동국, 취업허가서 받아

미들즈브러와 18개월 계약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미들즈브러로 이적한 이동국(28)이 취업허가서를 받으며 입단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이 신문은 “이동국이 일주 간의 테스트에서 강한 인상을 줬다”며 “2월 3일 미들즈브러 홈 경기로 열린 프리미어리그 아스널전 출전선수 명단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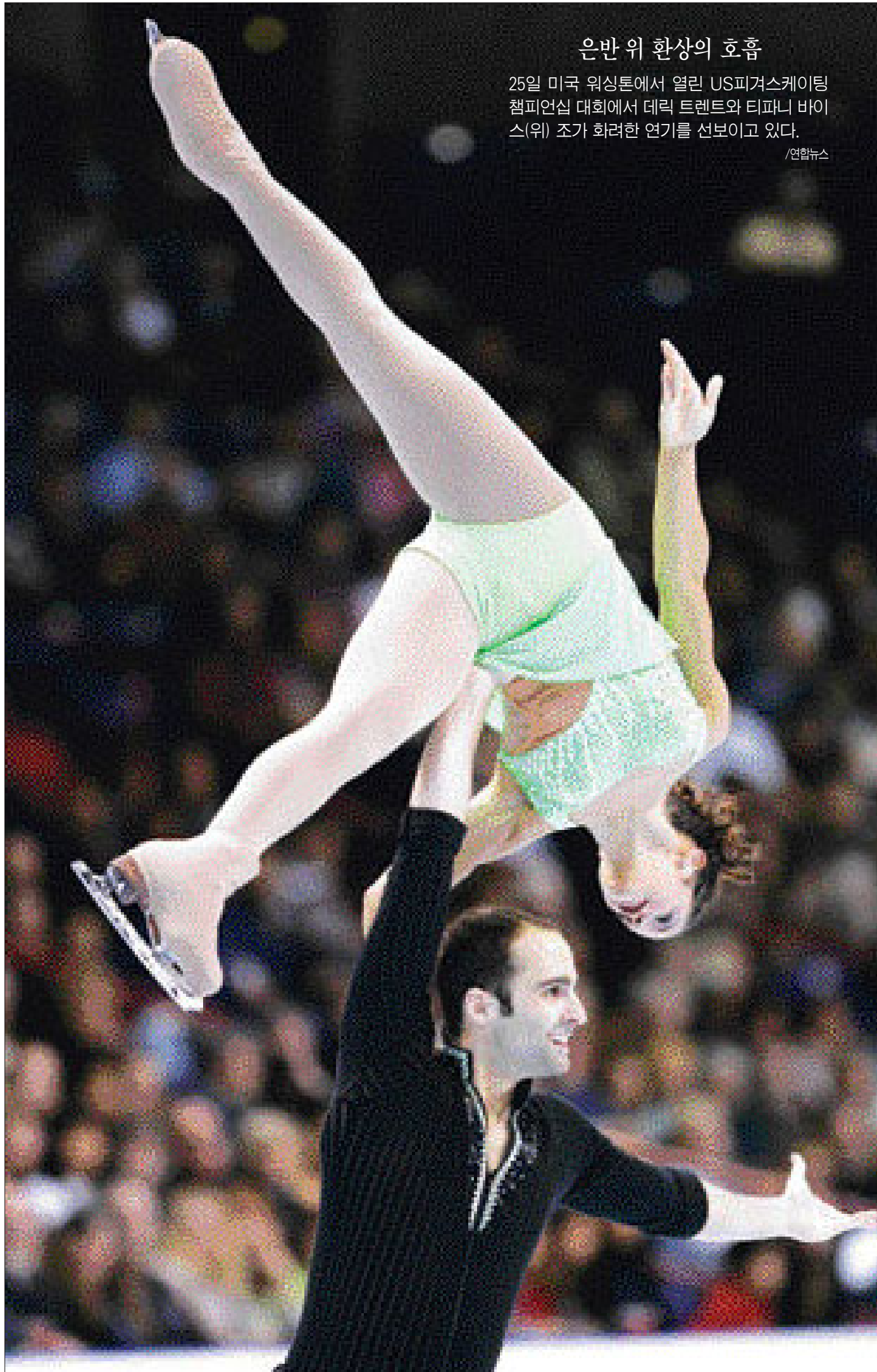


이천수 위건행 돌파구 찾아라

위건 “先 임대” vs 울산 “완전 이적” 양측 입장차 못잡혀 협상 담보 상태

이천수(26·울산 현대)가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의 위건 애슬레틱으로부터 영입 제의를 받고도 ‘임대’와 ‘완전 이적’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협상이 담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로 임대 후 완전 이적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은반 위 환상의 호흡

2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US피겨스케이팅 챔피언십 대회에서 데릭 트렌트와 티파니 바이스(위) 조가 화려한 연기를 선보이고 있다.

베어백스와 평가전 앞둔 그리스

“우리도 해외파 총출동”

다음 달 7일 오전 5시(이하 한국시간) 영국 런던 크레이브 카티지 스타디움에서 한국 축구국가대표팀과 새해 첫 A매치를 치르는 그리스가 해외파를 총동원한 정에 멤버로 출격할 전망이다.

설기현 2군리그서 도움 1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 중인 설기현(28·레딩FC)이 2군 리그에 출전해 결승골을 어시스트했다.

KIA 선수단 자켓 등 판매

KIA타이거즈가 선수단 트레이닝복과 파카, 스프링 자켓을 판매한다.

